

주부의 여가활동과 여가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isure Activities and Their Constraints of Housewives—

계명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홍 성 희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문 숙 재

Dept. of Home Management, Kei Myung University

Assistant Prof: Sung Hee Hong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en's University

professor: Sook Jae Moon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해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isure activities of housewive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leisure activities, and to explore the factors contribute to their life satisfaction. So,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s of econo-demographic and socio-cultural variables and of leisure constraint factors on the leisure activities of housewives. And it deals with how these variables and the leisure activities influence life satisfaction of housewives.

For these puoposes, 508 housewives residing in Seoul & Daegu were selected for interviews. For data analysis such statistical methods as ANOVA,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an be summarised.

The main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1. Leisure acivities are classified in Self-developmental, Home-oriented, Time-consuming, Social and Children-concerned types by the technique of factor analysis. The average participation level was high in Time-consuming type, but low in Self-developmental type.

2. The participation level of leisure activities shows significant differences by selected

variables: The Self-developmental type shows significant differences by housewife's education level, income, husband's occupation, role orientation, home management type and leisure constraints. And Children-concerned type was differed to number of family member, number of children, age of housewife and age of the youngest child.

3. The preference level of leisure activities differ by housewife's education level, income, husband's occupation, home management type and leisure constraints in the Self-developmental and the Social type. And the preference level of Home-oriented leisure activities was high in the middle class of income and husband's occupation.

4. The preference and participation level of leisure activities show differences. And the variables affecting the differences were housewife's age, education level, home management type, role orientation, leisure constraint factors in the Self-developmental type, and were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number of family member, housewife's age in the Home-oriented type.

5. The variables which affected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independently were leisure space, income, the participation level of the Self-developmental and the Social type and the preference level of the Self-developmental type.

I. 서 론

A. 문제의 제기

산업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로 인해 여가시간이 증가되어 왔으며 삶의 질적 향상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여가의 중요성에 의의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사회문화적 변화는 남·녀의 역할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 여성들은 가정적 역할 이외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교육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추구 의식이 고취되고 있다. 또한 소득 및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이러한 의식을 실현시키기 위한 여가활동에 경제력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가족이 핵가족화되고, 자녀양육 기간이 단축되었으며, 종래의 가정기능중 많은 부분이 사회로 이양되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주부들이 여가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 및 기회가 증가되었다. 그러므로 가사노동의 시장의존도를 높임으로써 가사노동을 경감시키고 절약된 시간을 여가활동에 배분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이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주부들은 가사노동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문숙재·채옥희, 1986), 가정내에서 이루어 지는 가사노동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좁은 인간관계내에서 생활하는 주부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가사노동 수행시의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여가추구가 필요하다.

여가활동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뿐 아니라 총체적인 생활의 질을 예시해주는 중요한 영역으로 생활만족도에 기여하는 요인이다. 즉 여가활동의 결과가 생활만족도를 증진시켜 준다는 점에서도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입증된다.

여가에 관한 연구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시도된 바 있다. 경제학에서는 시간의 유한성으로 인해 노동과 여가에 시간을 배분해야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시간을 중심적인 자원으로 인정하고 시간배분적 관점에서 여가에 접근하고 있다. 지리학 분야에서는 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관심을 두었으나 모든 활동에는 공간과 동시에 시간이 소비된다는 점을 인식함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하고 이를 여가활동 분석에 적용시키고 있다. 사회학 분야에서는 여가를 사회계층과 연결시

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는데, 즉 여가를 단순히 일하고 남은 잉여시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여가활동은 사회경제적 요소와 관련된 사회계층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한편 가정학 분야에서 지금까지 여가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들은 여가시간이나 여가활동의 내용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기초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활동 선택에 관한 연구와 가정학 및 경제학 분야의 시간배분연구를 토대로 여가활동 분석에 접근하고자 한다.

활동 선택에 관한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향 및 동기에 따라 특정 활동이 선택되고, 선택된 활동은 참여결과에 따른 만족도에 의해 평가되며, 평가의 결과는 차후 선택에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활동선택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유용성을 갖으나, 모든 일상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여가활동의 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시간배분에 관한 연구는 시장노동과 여가를 포함한 가정내 활동에 대한 시간배분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시간에 1차적인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여가활동은 부수적으로 다루어진다. 한편 여가활동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는 연구에서도 미시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여가활동 선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으로써 여가활동이 생활에서 갖는 중요성이 과소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통합시켜 주부들의 여가활동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주부들의 여가활동은 개인적 특성·경제적 요인·사회적 요인 및 여가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자원 등 다양한 영향·요인이 작용한 결과 선택되며, 선택된 여가활동의 참여결과는 생활만족도에 반영됨으로써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간접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보고자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여가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고 여가활동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기여도를 통해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본 연구는 가정주부의 여가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생활만족도에 대한 여가활동의 기여를 분석함으로써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부들이 여가활동 선호도와 참여도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며, 생활만족도에 대한 여가활동의 영향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주부의 여가활동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첫째, 여가활동의 내용에 따라서는 가족 및 타인과 함께 하는 활동이 포함되나, 본 연구는 가정주부에 초점을 맞추고자하므로 타인과 공동으로 하는 여가활동은 고려하지 않고 주부 개인에 국한시켰다.

둘째, 생리적 필수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동안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진 가정주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취업주부의 경우 취업과 가사노동의 이중 역할부담으로 인해 자신의 여가활동 참여는 절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따라서 취업주부나 남편이 자영업자이며 주부가 이를 보조하는 경우를 제외한 전업주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의 구조적·문화적 변화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가치관·개성·자아실현성 등 개인의 심리적 측면을 다루지 않았다.

II. 이론적 배경

A. 여가의 개념

여가에 대한 개념 정의는 이미 고대 그리이스 시대의 고전적인 개념에서부터 사회계층의 상징으로, 일과 대조되는 비근무활동으로, 잉여적 관점에서 본 자유재량적 시간으로 정의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전체론적 관점에서 각 정의에 나타나는 특성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보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각 개념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리이스 시

대의 여가는 Aristotele에 의해 발전되어온 개념으로 어떤 활동을 통한 '심리적인 상태'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여가를 명상, 지식의 추구, 토론 등을 통해 스스로 즐기는 동시에 정신과 의식을 발전시키고 훌륭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강조하고 있다. De Grazia(1964)는 이러한 개념을 현대사회에 적용시켜, 여가를 하나의 목적으로 물질적 기반이나 가치 이상의 것으로 보았다.

한편 여가를 사회계층의 상징으로 보는 견해는 미국의 사회학자 Thorstein Veblen(1953)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그는 유럽중세와 문예부흥기 및 산업사회에 주목하여 여가를 소유하고 이를 잘 이용하는 것이 바로 상류계층의 상징임을 발견하였다(Murphy, 1974에서 재인용). 즉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여가를 향유한다는 것은 부의 증거이며, 높은 사회계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Veblen의 연구 이후 사회계층이나 직업, 인종 등에 따라 여가를 분류하고 개념화시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연구 결과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은 사회계층수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특히 어느 정도 교육수준을 필요로 하는 활동과는 더욱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개념으로서 여가는 일이나 가족, 사회의 의무에서 벗어난 자유시간 동안 참여하는 비근무활동으로 이해된다. Dumazedier(1967)는 여가를 일이나 가족에 대한 의무, 또는 사회의 제약에서 벗어났을 때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기분전환을 하고, 지식을 넓히고, 자발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창조력을 발휘하기 위해 행하는 임의적인 활동의 총체라고 정의함으로써 활동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활동의 측면에서 본 여가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비근무활동의 기회를 포함하며, 자유시간동안 수행되는 자발적인 행동임을 강조함으로써 일과 여가를 뚜렷이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와같이 다양한 여가의 개념을 현실적으로 적용시킬 때 고전적 개념이나 사회계층의 상징으로서의 개념은 현대적인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고, 비근무활동의 개념은 여가의 존재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일

이 존재해야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비의무성, 자유로움, 개인적 선택의 가능성이 어느정도 존재하느냐하는 것이 연구의 초점이 되고있으며, 따라서 여가를 자유재량적 시간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가의 개념은 두가지 상반되는 견해 즉, 목적으로서의 여가와 수단으로서의 여가로 구분된다. 목적으로서의 여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적 견해와 De Grazia의 개념정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가를 목적 자체로 보는 것이다. 반면 수단으로서의 여가는 일의 윤리에 토대를 둔 것으로, 여가를 다음의 생산적인 노력을 위한 휴식, 긴장완화, 재생산 등으로 간주하며, 그 특성에 있어 수단적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문화의 다양성이나 복합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여가는 이제 소수의 전유물이나 남는 시간·금전 등에 의존하는 요소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활문화에서 중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여가는 단일활동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종교, 직업, 가족생활과 결부된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것으로 개념화된다. 즉 전체론적인 관점(holistic perspective)에서 볼 때 여가는 개인의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시간에 이루어지며, 참여자에 의해 여가로 인식되며 심리적으로 즐겁게 기대하는 것이며, 잠재적으로 모든 실행을 포괄하며, 특징적인 규준과 제약을 내포하며 레크리에이션, 개인적 성장, 타인에 대한 이해와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스스로 결정하는 활동과 경험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개념화된다.

이상에서 볼때 여가에 관한 연구는 역사적으로 강조점을 달리하며 진행되어 왔으나 현대적인 의미에서 여가는 다양한 사회구조의 통합적인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단일요소가 아니라 시간의 측면에서, 활동의 측면에서 주관적인 인식의 측면에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고 역동적인 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되어야할 것이다.

B. 여가활동 분석을 위한 접근방법

1. 변환적 접근방법

Chapin(1974)은 지리학에서 개인의 활동유형에 대해 관심이 적었던 것에 주목하여 일상적인 활동의 유형화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시간 및 공간은 이에 도움이 되거나 제약이 되는 요인으로 보았다. Chapin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선택자유의 범위와 연기가가능성 정도에 따라 가장 의무적인 행동에서부터 가장 자유재량적인 행동에 이르기까지 연결된 하나의 연속체(continuum) 상에 위치한다. 수면과 같은 생리적 행동은 비자발적인 행동이며 모든 사람에게 있어 유사하나 자발적인 행동은 자유재량적이며 경험에 의해 학습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선택의 다양성을 갖는다. 이때 선택이 이루어지는 방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선택의 유사성 등의 문제에 접근하기위해 Chapin은 일상활동선택모델을 개념화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특정 활동유형은 개인의 성향, 기획, 상황 및 전체적인 환경적 배경 등의 영향요인이 작용한 결과 선택되며 선택된 활동은 참여결과에 따른 만족·불만족의 수준에 의해 평가되며 평가결과는 환류(feedback)되어 차후의 선택에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

이 모델에서는 특정활동을 사회체제와 관련된 선택체제의 산출물로 보고, 또한 활동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 및 성향, 시간, 공간 등의 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활동참여의 결과가 다시 반영되는 환류관계를 설정함으로써 활동선택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역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모델은 특히 여가활동에 적용시키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의무적인 활동영역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반면, 자유시간이나 비의무적인 시간에 자유재량에 의해 행해지는 여가활동은 강제성·의무성이 희박한 행위로서 선택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2. 생활시간 배분적 접근방법

가정학 분야에서는 생활시간구조를 통해 여가에 접근해왔다. 즉, 생활시간의 일부로서 여가시간을 조사하거나 여가활동에 대해 주로 시간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모든 가족은 동일한 양의 시간을 갖으나 현재 및

장래의 시간사용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환경내에서 시간을 사용하게된다(Beard, 1977을 참조, 민경애, 1984에서 재인용). 시간사용은 생활의 문화적·사회적 지침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주며, 특히 일상생활시간과 활동을 알게해줌으로써 사람들의 행동과 생활유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Matsushima, 1981).

지금까지 이루어진 생활시간연구는 여가시간 및 가사노동시간의 양을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내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시간자원의 유한성에 따라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활동들에 대해 시간은 끊임없이 분배해야하는 필요성을 인식해야하며, 따라서 시간배분적 관점에서 여가와 가사노동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생활시간 배분적 관점에서 주부의 여가활동은 1차적 의무인 가사노동과 상호경쟁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가사노동시간과 관련된 가사노동의 수행방식 또는 가사노동의 시장의존 정도와 여가활동의 관계를 통해 여가와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배분에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3. 시간배분적 접근방법

시간배분에 대해 경제학의 시각에서 최초로 언급한 George Soule(1955)은 시간이 토지·노동력·자본과 통합된 희소자원이므로 토지나 노동력 등을 분배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시간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Carlstein 등, 1978에서 재인용).

또한 Becker(1965)는 개인 및 가계를 단위로 비근무활동내의 시간배분을 화폐수입 및 지출과 통합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그에 의하면 가계는 시장제화 및 시간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을 사용하여 복지가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시간 및 소득제약에 따라 복지를 극대화시킨다. 이때 소득제약(Income Constraints)은 총지출이 총소득과 같다는 점에서 시간계약(Time constraints)은 이용가능한 총시간이 시장노동시간과 여가시간으로 분배된다는 점에서 제약으로 작용하며, 총소득은 소비재와 여가에 지출되는 것으로 본다.

최근 Feldman 등(1981)은 여가를 '비노동(non-work)'으로서 이중 생리적 필요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볼 것을 제안하고, 시간구조를 취업노동과 생리적 필요, 가사노동, 여가의 4가지 활동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시간구조의 구성요소중 여가는 가장 정의하기 어려운 활동이다. 여가를 자유롭게 선택된 활동이라고 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비근무중 어느 정도가 여가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비근무활동중 선택의 자유가 주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근무의 감소는 비근무의 증가를 가져오나, 자유로이 선택된 의미있는 활동 즉, 여가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비근무활동간의 개인의 시간배분결정이다.

시간배분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대부분 자원의 이용가능성이며 이 자원들은 시간적 측면, 비용적 측면, 공간적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시간적 측면에는 지속시간·활동의 빈도·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 등이 포함되며, 비용적 측면이란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화폐비용을, 공간적 측면이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장소·거리 등을 뜻한다(Feldman 등, 1981). 인간의 모든 활동에는 시간·금전·공간의 세 가지 자원이 사용되나 그 정도는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개인의 시간배분 결정은 이 세가지 자원의 이용가능성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한편 개인의 여가활동 선택은 개인적인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룩된다. Settle 등(1978)의 연구에서는 연령, 가정생활주기 등 인구학적 변인은 여가시간, 여가의 동기, 여가에 대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대 사회의 경제적 풍요, 문화의 확산 등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다양한 형태의 여가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계층 요인이 여가활동에 영향력이 감소되었다(Kaplan, 1960)는 견해도 있으나 지금까지 사회계층·직접·소득·교육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변인을 여가행동과 관련을 갖는 것으로 꾸준히 발견되어왔다(Kelly, 1972).

이상에서 볼때, 경제학 및 소비자행동 측면에서 이루어진 시간배분연구는 시간적으로 우세한 활동유형을 밝혀내는 것과 특정활동 참여와 이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초점을 둔다.

지금까지 살펴본 접근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첫째 변환적 접근방법은 특정활동의 선택과정 및 결과를 체계적으로 밝히고자 하였으나, 모든 일상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여가활동의 특성이 경시될 수 있다.

둘째, 생활시간 배분적 접근방법은 여가시간을 생활시간의 일부로 봄으로써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거나 시간적 측면에 치우친 결과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셋째, 시간배분적 접근방법은 여가시간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함으로써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여가활동을 선택하고자 할때 그 결과를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나, 여가활동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생활에 대한 여가활동의 기여도가 과소평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접근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즉 시간배분적 관점에서 여가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서 시간·금전·공간자원의 이용가능성에 의해 여가활동이 선택되며, 선택된 활동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인구학적 요인·경제적 요인·역할성향, 그리고 생활시간배분시 주부의 여가활동과 경제적인 관계에 있는 가사노동의 수행방식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여가활동 참여의 결과를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C.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의 개념 및 구성요소들을 살펴볼때 생활만족도란 가정에서 영위되는 생활전반을 통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기대 및 목표의 성취정도에서 느끼는 충족감의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여가는 일반적으로 생활만족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되어 왔으며, 생활의 질에 기여하는 것으로 입증되어왔다. Ray(1979)의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추구가 건강 다음으로 생활의 만족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Campbell 등(1976)의 연구에서도 여가에 대한 만족은 전반적인 행복과 가장 강력

한 관련을 갖는 단일 영역으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여가활동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사회생활의 기회가 제한되어있고 단조로운 가사작업의 반복과 좁은 인간관계의 테두리내에서 생활하는 주부들에게 여가활동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뿐 아니라 생활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D.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경제인구학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상의 개인적 특성은 개인의 시간배분 및 그 결과 나타나는 여가활동 선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Iso-Ahola, 1976).

여가는 필연적으로 일과 관련되어 있는데, 산업화 이후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유급노동시간이 감소되었고, 따라서 여가가 과거와 같이 유한계급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 여가의 시대가 되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여가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직업·교육수준 및 사회계층이 여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의미를 잃었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여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합리적으로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으나 여가를 즐기는 기회 및 경험은 사회계층에 따라 분리된 특성을 보인다는 견해도 있다(Parker, 1976).

한편, 산업화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핵가족화·자녀수의 감소·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야기시켰는데, 이는 여성의 여가활동 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핵가족화·자녀수 감소 등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가사노동의 부담이 경감되었고,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주부들이 여가활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시키려는 욕구가 증진된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경제구조 및 인구구조가 여가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주부 개인의 연령·교육수준·소득·자녀수 및 연령·주택유형의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2. 사회문화적 요인

산업화에 따른 경제인구학적 요인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요인의 변화는 남녀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켜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 및 참여에 영향을 주고있다.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를 기반으로 한 가정생활에서는 여성의 생활이 가정생활에 의해 결정되므로 여가는 봉쇄되었다. 반면 근대적인 성역할 관념은 주부의 여가시간 및 여가에 관한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다(Parker, 1976).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 성역할이 주부의 여가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역할지향성과 가정관리행동유형의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역할지향성이란 개인이 속한 문화권내에서 남성성 또는 여성성으로서 일반적으로 동의되는 태도나 행동을 반영한 것이다. 전통적인 역할을 지향하는 태도는 남성에게 수단적 역할을 여성에게는 표현적 역할을 가정하여 여성을 가정에 귀속시킴으로써 여성의 가사노동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조윤경, 1988), 따라서 여가활동 참여를 위한 시간 등의 자원과 실제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역사적 흐름에 따른 가정의 변화를 살펴볼 때, 문숙재(1980)는 가정관리행동의 시장의존성을 중심으로 가정의 유형을 자급자족가정·용역가정·시장의존가정으로 분류하였다. 이 세가지 형태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각 가정의 가치관 및 가정을 둘러싼 사회문화적·기술경제적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가정관리자가 시장의존적인 가정관리행동유형을 보일때 가사노동의 부담이 경감됨으로써 자유시간이 증가되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가정의 가치관과 경제력, 속해있는 환경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시장의존도를 높임으로써 가사노동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절약된 시간을 여가활동에 배분하는 방식도 새로운 유형의 가정관리행동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1차적 역할인 가사노동을 처리하는 방식이 외부적으로 표현된 가정관리행동유형을 주부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3. 여가계약 요인

개인의 여가활동 참여는 경제인구학적 요인·사회문화적 요인 이외에 여가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자원의 정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 자원들은 시간·금전·공간으로 요약되며, 이 세가지 자원이 개인의 여가시간 분배 및 활동참여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여가계약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시간과 공간은 인간의 행동에서 상호관련된 차원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시간의 희소성과 빈번한 이동으로 인해 거리의 최소화가 요구되며, 공간의 기능은 거리나 비용뿐 아니라 시간에 의해서도 측정가능하다.

또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시간과 금전은 많은 시간분배 결정에서 상호보완적이나, 개인에 따라 경쟁적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가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금전이 필요하나 비노동시간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금전 양자간의 교량관계(trade-off)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간·공간·금전의 관계 및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여가활동을 보다 잘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A. 연구문제의 설정

현대 산업사회의 역동성에 따라 핵가족화·자녀수 감소 등의 인구구조의 변화와 교육수준 및 소득의 향상 등 경제적 측면의 변화는 주부들의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회문화적 측면의 변화는 역할고정성을 변화시켜 여성들도 가정적 역할 이외에 다양한 역할을 수용하고자 하며 이러한 역할 성향은 가사노동을 경감시키고 그로 인해 절약된 시간을 비롯하여 비용·공간 등 자원을 적극적인 여가추구에 투입시키도록 유도한다.

한편 여가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가에 할애될 수 있는 시간 및 화폐비용, 그리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유무 등이다.

이상의 경제인구학적, 사회문화적 및 여가계약요

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여가활동은 주부의 생활만족도 증진에 기여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단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주부의 여가활동은 경제인구학적 변수, 사회문화적 변수 및 여가계약 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제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 주부들의 여가활동은 여가계약 요인만족도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주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B.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서울과 대구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1990년 6월 4일부터 8일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82부를 분석한 후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서울과 대구 2개 지역에서 1990년 7월 23일부터 8월 13일에 걸쳐 실시하여 633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50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고, 일원분산분석과 사후검증법으로 던컨의 다중범위검증, T검증, 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Ⅳ. 결과 및 해석

A. 기초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해 살펴본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의 경우 30대가 42.5%로 가장 많고 40대가 38.8%로 30대·40대가 전체의 80% 이상이며, 교육수준은 고졸이 47.2%로 가장 많다.

남편의 직업은 전문관리직·행정직이 34.1%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자영업상공업주가 25.6%, 사무직 및 기술직이 25%의 순이다. 소득은 71~120만원, 70만원 이하, 121~200만원, 201만원 이상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가정자산은 2001만~1억이하, 2000만

원 이하, 1억1만~2억, 2억1만 이상의 순서로 분포되어 있다.

가족수는 4명 또는 5명이 각각 34.8%로 전체의 82%가 5명이하이다. 자녀수는 2명이하 57.1%, 3명이 32.1%로 매우 적은 경향을 보인다. 막내연령은 7~12세인 경우가 24.6%, 13~18세인 경우가 25.4%로 초·중·고에 재학중인 경우가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이 48.1%, 집합주택이 51.9%로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한편 사회문화적 요인중 가정관리행동 유형은 빈도 분포를 중심으로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때 용역형인 집단은 28.9%, 시장의존형인 집단이 29.9%

이며, 중립형인 집단이 41.2%로 가장 많다.

역할지향성 또한 빈도에 따라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을때, 전통적 집단 31.5%, 중간 집단 39.4%, 근대적 집단 29.1%으로 전통적이거나 근대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는 중간 집단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여가계약 요인 중 여가시간은 2~3시간 미만, 4~5시간 미만인 경우가 각각 23.8%이며, 전체 대상자의 평균 여가시간은 4시간이었다. 여가비용은 소득비로 환산하여 0~0.03미만, 0.03~0.06미만, 0.06~0.2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하, 중, 상으로 보았다. 이때 중 집단이 40.5%로 가장 많았고, 전체 대상자의 평균 여가비용은 71670원으로 나타났다. 여가공간은 중집단이 50.0%로 가장 많았다(<표 1> 참조).

〈표 1〉 조사대상자(주부)의 일반적 특성

(N=508)

변수	집단	빈도	백분율(%)
연령	20대	31	6.1
	30대	216	42.5
	40대	197	38.8
	50대 이상	64	12.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28	25.2
	고 졸	240	47.2
	대졸 이상	140	27.6
남편 직업	생산직 근로자, 단순노무자	77	15.2
	자영업주	130	25.6
	사무직 및 전문기술직	127	25.1
	전문직, 관리직, 행정직 등	173	34.1
소득	70만원 이하	152	29.9
	71-120만원	174	34.3
	121-200만원	112	22.0
	201만원 이상	70	13.8
가정 자산	2천만원 이하	119	23.5
	2001만-1억원	168	33.0
	1억1만-2억원	93	18.3
	2억1만원 이상	93	18.3
	무 응 답	35	6.9
가족 수	3인 이하	64	12.7
	4인	177	34.8
	5인	177	34.8
	6인 이상	90	17.7
자녀 수	1명 이하	76	15.0
	2명	214	42.1

	3명	163	32.1
	4명 이상	55	10.8
막내자녀 연령	6세 이하	98	19.2
	7-12세	213	42.0
	13-18세	127	25.0
	19세 이상	62	12.2
	무응답	8	1.6
주택 유형	단독 주택	242	47.6
	집합 주택	261	51.4
	무응답	5	1.0
가정 관리 행동 유형	용역형	147	28.9
	중립형	209	41.2
	시장의존형	152	29.9
역할 지향성	전통적 집단	160	31.5
	중간 집단	200	39.4
	근대적 집단	148	29.1
여가 시간	2시간 미만	79	15.6
	2-3시간 미만	121	23.7
	3-4시간 미만	100	19.8
	4-5시간 미만	121	23.7
	5시간 이상	86	17.0
	무응답	1	0.2
여가 비용	상	147	28.9
	중	206	40.6
	하	149	29.3
	무응답	6	1.2
여가 공간	상	157	30.9
	중	254	50.0
	하	97	19.1
계		508	100.0

2. 여가활동의 유형 및 실태

여가활동을 유형화하는 방법은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따라 사전에 분류하는 방식과 통계분석에 의한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응답내용에 중점을 두기위해 요인분석을 통해 여가활동을 유형화시켰다.

총 29개 문항에 대해 배리맥스 회전방식(VARIM-AX ROTATION)에 의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8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나 요인의 수가 너무 많아 다시 Scree test에 의해 5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때 색·라디오 청취·놀이의 3개 문항은 요인별 적재치

가 .35이하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이들을 제외한 26 문항에 대한 5개 요인으로 확정하였다.

요인의 구성과 요인별 적재치는 <표 2>와 같다. 각 요인은 구성요인의 특성에 따라 각각 자기개발적·가정지향적·시간소일적·사교적·자녀중심적 여가로 명명하였다.

B. 연구문제의 분석

1. 관련변수에 따른 여가활동의 차이 및 제 변수들의 영향력

〈표 2〉 여가활동에 대한 요인행렬표

변 수	요 인					
	자기개발	가정지향	시간소일	사교적	자녀중심	공통분산 비
전시회, 전람회, 음악회 등 관람	.77	.07	-.07	.02	.15	.64
취미활동(꽃꽂이, 공예, 그림, 노래 등)	.70	.10	-.09	.18	.13	.55
헬스클럽, 썩탕, 사우나	.68	.04	.17	.05	-.12	.51
여행	.66	-.01	.08	.26	-.05	.51
연극, 영화 관람	.65	.06	.04	.07	.25	.50
운동(수영, 테니스, 미용체조, 산보 등)	.64	.06	-.03	.18	-.10	.46
잡지 구독	.62	.10	.04	.04	.24	.46
교양 강좌(주부대학, 노인대학 등)	.62	.06	.07	-.08	-.06	.40
독서	.49	-.04	-.11	.10	.44	.46
쇼핑	.47	.14	.29	.11	-.05	.34
실내 장식	.45	.43	-.11	.17	.01	.43
신문 구독	.44	-.04	-.17	.33	.24	.38
특별요리 만들기	.41	.33	-.16	.33	.15	.43
실내장식용 소품 만들기	.17	.79	.03	-.11	.17	.70
뜨개질, 수예	-.06	.78	.08	.03	.11	.63
정원손질, 화초가꾸기	.31	.45	-.16	.25	-.11	.40
낮잠	.07	.01	.78	-.19	.01	.65
휴식	.12	-.02	.76	.06	-.01	.59
T.V 시청	.07	-.12	.49	.28	.14	.35
이웃과의 환담	.10	.30	.42	.33	-.10	.39
친구와의 교체	.38	.01	.09	.62	-.19	.58
친척방문 및 내방	.02	.13	-.01	.60	.16	.40
가족과의 대화	.22	-.14	.18	.49	.28	.41
동창회, 계모임, 친목회	.43	.13	.16	.47	-.38	.60
어린 자녀와 놀아주기	-.05	.08	.14	.08	.74	.59
자녀의 예능지도	.17	.18	-.04	.03	.72	.58
고유치(eigenvalue)	5.27	1.99	1.95	1.94	1.92	13.07
전체 변량(%)	18.27	5.86	5.72	5.69	6.62	-
공통 변량(%)	40.27	15.27	14.96	14.83	14.65	-

1) 경제인구학적, 사회문화적 요인 및 여가제약요인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도

주부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경제인구학적요인, 사회문화적요인, 여가제약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다.

여가활동 유형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자기개발적 여가활동 참여도는 가족수·자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교육

수준·남편의 직업 및 소득·가정자산 등 경제적 요인과 여가제약요인 및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 참여도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자기개발적 여가활동 참여도에는 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유형의 여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간·비용 및 공간 등의 자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이에 는 주부 자신의 역할성향 및 여가시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가사노동의 수행방식이 관련되어 참여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표 3〉 여가활동 참여도에 대한 분산분석

변수	집단	여가활동참여도														
		자기 개발적			가정 지향적			시간 소인적			사교적			자녀 중심적		
		평균	F값	DMR	평균	F값	DMR	평균	F값	DMR	평균	F값	DMR	평균	F값	DMR
주택유형	단독주택	31.23		B	6.94		A	13.07		A	12.68		A	5.98		A
	집합주택	33.97	14.40 ^{***}	A	7.19	1.66	A	13.05	.01	A	12.82	.47	A	5.71	1.96	A
가족수	3인 이하	32.69		A	7.23		A	13.69		A	12.70		A	6.30		A
	4인	33.16		A	7.11		A	12.94		B	12.59		A	6.18		A
	5인	32.44		A	6.88		A	13.06		AB	12.92		A	5.41		B
	6인 이상	31.73	.64	A	7.18	.65	A	12.74	2.09	A	12.72	.61	A	5.74	4.93 ^{**}	BA
주부연령	20대	30.97		B	6.42		B	13.58		A	12.42		B	7.75		A
	30대	31.19		B	7.00		AB	12.78		A	12.27		B	6.50		B
	40대	33.58		AB	7.17		AB	13.15		A	13.01		A	5.26		C
	50대 이상	35.13	5.63 ^{***}	A	7.22	1.25	A	13.34	1.81	A	13.67	8.31 ^{***}	A	3.82	43.93 ^{***}	D
주부교육수준	중졸 이하	26.31		C	6.51		B	13.47		A	11.99		C	5.62		A
	고졸	32.23		B	7.30		A	13.02		AB	12.64		B	5.86		A
	고졸 이상	38.99	116.5 ^{***}	A	7.14	5.84 ^{**}	A	12.69	3.50 ^{**}	B	13.61	18.93 ^{***}	A	6.07	1.42	A
자녀수	1명 이하	32.32		A	7.26		A	13.46		A	12.62		A	6.42		A
	2명	33.15		A	7.09		A	12.87		A	12.56		A	6.21		A
	3명	32.53		A	6.95		A	13.12		A	13.03		A	5.31		B
	4명 이상	31.04	1.02	A	6.96	.40	A	12.89	1.24	A	12.76	1.44	A	5.23	9.12 ^{***}	B
소득	70만원이하	26.48		D	6.49		B	13.25		AB	11.67		C	6.13		A
	71-120만원	32.02		C	7.27		A	12.91		B	12.68		B	5.66		A
	121-200만원	36.57		B	7.29		A	12.61		B	13.22		B	5.83		A
	201만원이상	40.97	95.84 ^{***}	A	7.40	5.16 ^{**}	A	13.61	3.09 [*]	A	14.43	30.75 ^{***}	A	5.74	1.43	A
박내연령	6세 이하	30.98		B	6.82		A	13.25		A	12.41		C	7.53		A
	7-12세	32.11		B	7.16		A	12.81		A	12.49		BC	6.12		B
	13-18세	33.28		AB	6.91		A	13.06		A	13.03		AB	4.75		C
	19세 이상	34.61	3.05 [*]	A	7.41	1.32	A	13.48	1.53	A	13.53	5.33 ^{**}	A	3.55	74.76 ^{***}	D
남편직업	정신직업	25.12		D	6.36		A	13.01		A	11.46		C	6.07		A
	반준노무직	29.97		C	6.92		AB	13.23		A	12.47		B	5.73		A
	사무직	33.11		B	7.01		A	12.98		A	12.69		B	6.20		A
	전문기술직 전문직 관리행업직	37.85	69.40 ^{***}	A	7.24	3.97 ^{**}	A	12.99	.31	A	13.61	19.54 ^{***}	A	5.61	2.29	A
가정자산	2000만원이하	26.52		C	6.36		B	13.43		A	11.58		C	6.23		A
	2001만-1억원	31.18		B	7.13		A	12.86		AB	12.69		B	5.69		AB
	1억1만-2억원	37.48		A	7.68		A	12.60		B	13.23		B	6.06		A
	2억1만원이상	38.97	77.64 ^{***}	A	7.40	7.53 ^{***}	A	13.47	3.41	A	14.04	25.02 ^{***}	A	5.26	3.85 ^{**}	B
가정관리행동유형	통역형	28.37		C	7.04		A	12.99		B	12.09		B	5.80		A
	중립형	31.35		B	6.96		A	12.72		B	12.46		B	5.87		A
	시장의존형	38.40	77.95 ^{***}	A	7.20	.55	A	13.54	5.22 ^{**}	A	13.76	25.45 ^{***}	A	5.87	.05	A
역할지향형	전통형	29.39		C	6.71		B	13.14		A	12.33		B	5.55		B
	중간형	32.89		B	7.24		A	13.04		A	12.88		A	5.93		AB
	근대형	35.68	21.93 ^{***}	A	7.19	3.09 [*]	A	12.95	.23	A	13.01	4.08 [*]	A	6.07	2.53	A
여가시간	2시간 미만	26.46		C	6.24		C	12.56		A	11.49		C	6.15		A
	2-3시간미만	30.82		B	6.87		B	13.12		A	12.46		B	5.88		A
	3-4시간미만	32.71		B	7.34		AB	13.00		A	12.81		AB	6.03		A
	4-5시간미만	35.13		A	7.20		AB	13.17		A	13.29		A	5.55		A
	5시간 이상	37.05	26.13 ^{***}	A	7.53	4.69 ^{***}	A	13.21	1.03	A	13.44	11.18 ^{***}	A	5.56	1.31	A
여가비용	상	35.93		A	7.10		A	13.34		A	13.60		A	5.58		A
	중	33.67		B	7.18		A	12.81		A	12.90		B	5.83		A
	하	28.11	41.40 ^{***}	C	6.84	1.090	A	13.14	2.16	A	11.82	25.85 ^{***}	C	5.74	.36	A
여가공간	상	39.89		A	7.57		A	12.91		A	13.97		A	5.58		B
	중	33.53		B	7.22		A	13.19		A	13.04		B	6.12		A
	하	26.59	120.5 ^{***}	C	6.48	9.26 ^{***}	B	12.89	.98	A	11.51	47.40 ^{***}	C	5.56	4.34 ^{**}	B

*p<.05 **p<.01 ***p<.001

수 있다.

둘째, 가정지향적 여가활동 참여도는 교육수준이 고졸로 중간정도인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소득과 가정자산, 남편의 직업이 어느 정도로 높은 집단에서 역할지향성이 중간형일때, 그리고 여가시간 및 공간이 많은 집단에서 더 높았다. 그러므로 가정지향적 여가활동은 준여가적 성격을 갖는 활동으로 구성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여가시간 및 공간 등 자원이 확보되었을 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세째, 시간소일적 여가활동은 전반적으로 볼 때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 및 가정자산의 수준이 아주 낮거나 높은 집단에서 그리고 가정관리행동유형이 시장의존적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가족수 및 자녀수, 주부 및 막내의 연령 등 인구학적 요인과 여가계약요인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수준이 낮은 주부들은 여가경험이나 여가참여를 위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휴식이나 관람 등 수동적이고 정적인 여가활동으로 소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득 및 가정자산 수준이 아주 낮거나 높은 집단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경제력이 없는 집단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적극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시간소일적인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현상이 당연하나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의 참여도가 높은 것은 문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김외숙(1977)의 연구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활동뿐 아니라 비용이 거의 필요치않는 활동에도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

네째, 사교적 여가활동 참여도는 가족수·자녀수 등 가족과 관련된 요인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주부의 연령 및 막내연령, 소득·남편의 직업·가정자산·교육수준 등과 사회문화적 요인, 여가계약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자녀중심적 여가활동은 가족수 및 자녀수가 적고, 주부 및 막내의 연령이 적을수록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 활동이 어린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정자산을 제외한 경제적

인 요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사회문화적 요인 및 여가시간·비용 등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유형의 참여도에는 인구학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경제인구학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및 여가계약 요인에 따른 여가활동 선호도

주부들의 여가활동 선호도는 경제인구학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여가계약 요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다.

여가활동 유형별로 검토해보면 첫째, 자기개발적 여가활동 선호도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직업·자산 등 경제적 수준이 어느정도 안정된 집단에서 높았다. 또한 근대적인 역할을 지향할수록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집단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가정관리행동유형이 시장의존적인 집단일수록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시장의존적인 가정관리행동을 통해 절감된 시간과 노력을 적극적인 여가 추구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바람직한 의식이 표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가계약 요인인 여가시간·비용·공간이 많을수록 선호도가 높은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 실제 참여뿐 아니라 선호 또한 여가계약 요인의 영향을 받고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정지향적 여가활동 선호도는 교육수준이 고졸인 집단, 소득수준이 중간정도인 집단, 그리고 남편의 직업이 자영업이나 사무직·기술적인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용역형의 가정관리행동유형을 보일때 여가시간이 3시간이상인 집단에서 높았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중간계층에 속하며, 용역형의 가정관리행동유형을 보이며 어느정도의 여가시간을 확보한 주부들이 이 유형의 여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째, 시간소일적 여가활동 선호도를 살펴보면 주부의 연령이 20대인 집단의 선호도가 타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자녀수 1명이하인 집단이 가장 높았다. 주부의 연령이 적거나 자녀수가 적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기대하고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 4〉 여가활동 선호도에 대한 분산분석

빈 수	집 단	여 가 활 동 선 호 도														
		자기 개발적			가성 지형적			시간 소인적			사회적			자녀 중심적		
		평균	F값	DMR	평균	F값	DMR	평균	F값	DMR	평균	F값	DMR	평균	F값	DMR
주택유형	단독주택	43.68		B	9.24		A	14.26		A	14.71		A	7.11		A
	집합주택	45.35	7.03**	A	9.30	0.09	A	14.14	.36	A	14.82	.38	A	6.85	2.73	A
가족수	3인 이하	44.44		A	8.98		B	14.56		A	14.95		A	6.97		A
	4인	44.77		A	9.15		AB	13.95		A	14.58		A	7.00		A
	5인	44.50		A	9.29		AB	14.29		A	14.84		A	6.91		A
	6인 이상	44.16	.16	A	9.70	1.66	A	14.21	1.58	A	14.90	.78	A	7.06	.17	A
주부연령	20대	45.36		A	9.13		A	15.07		A	14.84		AB	7.89		A
	30대	44.48		A	9.29		A	13.98		B	14.47		B	7.27		B
	40대	44.85		A	9.46		A	14.24		B	14.86		AB	6.79		B
	50대 이상	43.28	.94	A	8.73	1.75	A	14.34	2.68*	B	15.48	3.97**	A	5.71	16.15***	C
주부교육수준	중졸 이하	40.75		C	9.14		AB	14.54		A	14.29		B	6.81		A
	고졸	44.86		B	9.54		A	14.31		A	14.95		A	7.04		A
	고졸 이상	47.41	33.72***	A	8.94	3.48*	B	13.67	6.49**	B	14.91	4.47*	A	7.03	.87	A
자녀수	1명 이하	44.34		AB	8.97		A	14.61		A	14.78		A	7.02		A
	2명	44.93		A	9.20		A	13.92		B	14.65		A	7.11		A
	3명	44.77		A	9.48		A	14.39		AB	14.87		A	6.84		A
	4명 이상	42.53	1.76	B	9.38	1.05	A	14.13	2.69*	AB	14.98	.51	A	6.78	1.08	A
소득	70만원이하	40.93		C	8.89		B	14.68		A	14.22		B	6.86		A
	71-120만원	44.68		B	9.58		A	14.11		AB	14.65		B	7.01		A
	121-200만원	47.53		A	9.55		A	13.68		B	15.22		A	7.13		A
	201만원이상	47.16	26.27***	A	8.90	3.93**	B	14.16	5.17**	AB	15.56	8.69***	A	6.89	.58	A
막내연령	6세 이하	44.43		A	9.07		A	14.55		A	14.58		A	7.65		A
	7-12세	44.88		A	9.54		A	13.93		A	14.61		A	7.17		A
	13-18세	44.45		A	9.14		A	14.31		A	14.97		A	6.54		B
	19세 이상	43.26	.83	A	9.03	1.67	A	14.28	2.16	A	15.10	1.49	A	5.56	20.98	C
남편직업	생산직(근로자)	40.88		C	9.09		AB	14.40		A	13.65		B	6.86		B
	사무직(근로자)	43.07		B	9.59		A	14.32		A	15.06		A	7.05		AB
	전문직(근로자)	45.91		A	9.58		A	14.34		A	14.91		A	7.31		A
	전문직(관리직, 행정직 등)	46.24	14.70***	A	8.90	3.46*	B	13.86	2.06	A	14.98	9.25***	A	6.77	2.76*	B
가정자산	2000만원이하	42.08		B	8.96		B	14.87		A	14.11		C	7.04		AB
	2001만-1억원	43.35		B	9.44		AB	14.08		BC	14.88		B	6.96		AB
	1억1만-2억원	47.78		A	9.71		A	13.60		C	14.94		B	7.25		A
	2억1만원이상	47.00	17.42***	A	9.12	2.41	AB	14.23	6.75**	B	15.54	8.60***	A	6.63	1.91	B
가정관리행동유형	유역형	42.95		B	9.68		A	14.41		A	14.69		B	7.18		A
	중립형	43.92		B	9.26		AB	13.96		A	14.54		B	6.97		AB
	시장의존형	46.90	13.41***	A	8.90	4.64*	B	14.28	2.35	A	15.18	4.12*	A	6.77	2.16	B
역할지향형	전통형	41.58		C	9.05		A	14.25		A	14.52		A	6.63		B
	중간형	44.84		B	9.41		A	14.21		A	14.94		A	7.03		A
	근대형	47.30	27.96***	A	9.34	1.22	A	14.12	.16	A	14.82	1.79	A	7.29	5.90**	A
여가시간	2시간 미만	43.70		C	8.63		B	14.86		A	14.24		B	7.05		A
	2-3시간미만	44.47		B	9.14		AB	14.17		B	14.64		AB	6.9		A
	3-4시간미만	46.26		AB	9.57		A	13.92		B	14.61		AB	7.00		A
	4-5시간미만	46.28		A	9.48		A	14.19		B	15.18		A	6.86		A
	5시간 이상	46.28	7.81***	A	9.41	2.54*	A	13.91	2.82*	B	15.07	3.05*	A	6.97	.18	A
여가비용	상	45.92		A	9.14		A	14.36		A	15.20		A	7.01		A
	중	44.67		AB	9.23		A	13.88		B	14.78		AB	7.00		A
	하	43.24	5.29**	B	9.36	.41	A	14.52	4.33*	A	14.50	3.98*	B	6.93	.10	A
여가공간	상	47.30		A	9.20		A	13.76		B	15.08		A	6.68		B
	중	45.27		B	9.50		A	14.19		AB	14.99		A	7.17		A
	하	41.62	23.87***	C	8.96	2.88	A	14.46	3.27*	A	14.24	7.43***	B	6.83	3.73*	AB

*p<.05 **p<.01 ***p<.001

단순히 시간을 소비하는데 그치는 여가를 선호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사료된다. 한편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이 70만원 이하로 가장 낮은 집단에서 자산이 2000만원이하로 가장 낮은 집단의 선호도가 높았다. 여가제약 요인에 따라서는 여가시간·비용·공간이 적을수록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의 결핍은 소극적인 여가의식을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네째, 사교적 여가활동은 주부연령이 50대이상인 집단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자녀를 독립·분가시켜 가정내 역할이 경감된 주부들이 주로 가정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적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고졸 이상일때, 소득 및 자산이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정관리행동유형이 시장의존적인 집단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가사노동을 시장에 의존하여 처리함으로써 절약된 시간을 이 유형의 여가에 할애하고자 하는 의식을 볼 수 있다. 한편, 여가시간이 4시간이상일때, 그리고 여가비용과 공간이 많을수록 선호도가 높았다. 따라서 사교적 여가활동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보다 많은 여가비용을 할애할 수 있으며, 연령이 많고 시장의존적인 가정관리행동을 통해 여가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주부들이 선호하는 여가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자녀중심적 여가활동의 경우 주부연령 및 막내자녀의 연령이 적을수록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자녀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자녀중

심적 여가활동의 경우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층의 주부들이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편의 직업이 사무직 및 기술적인 집단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근대적인 역할성향을 갖은 집단일수록 선호하였다. 한편 여가공간이 중간정도인 집단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이상에서 볼때 자녀중심적 여가활동은 어린 자녀의 존재와 관련된 것이므로 다른 유형의 선호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주부 및 막내자녀의 연령 등 인구학적 요인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반면 소득, 자산, 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요인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여가활동 선호도와 참여도의 차이 및 관련 변수들의 영향력

여가에 관한 연구에서 여가활동 선호도와 참여도의 관계는 이론적·응용적 측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여가활동 인지에 대한 지식과 참여에 대한 정보를 연결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선호도는 여가활동을 주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참여도는 객관적인 측정수단으로 인정되어온 것을 볼 때, 선호도와 참여도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은 주관적 접근방법과 객관적 접근방법을 연결시켜준다는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선호도와 참여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토하기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각 유형별로 선호도와 참여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표 5> 참조). 즉 각 유형의 참여수준은 선호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문영

<표 5> 여가활동 유형별 선호도와 참여도의 차이

여가활동유형	선호도-참여도	평균	T 값
자기개발적	선호도	44.53	24.75***
	참여도	32.60	
가정지향적	선호도	9.27	16.05***
	참여도	7.06	
시간소일적	선호도	14.19	8.07***
	참여도	13.04	
사 교 적	선호도	14.77	14.74***
	참여도	12.74	
자녀중심적	선호도	6.97	9.26***
	참여도	5.85	

***p<.001

(1983), 민경애(1985)의 연구에서도 선호하는 여가 활동과 참여하는 여가활동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바 있다.

또한 선호도와 참여도의 차이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규명하기위해 경제인구학적 요인·사회문화적 요인·여가제약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선호도와 참여도의 차이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주부의 연령·교육수준·가족수·소득·가정자산·주택유형 등의 경제인구학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및 여가제약 요인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첫째, 자기개발적 여가활동 선호도와 참여도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beta = -.136$)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해 여가참여 경험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선호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근대적인 역할을 지향할수록($\beta = .115$), 용역형의 가정관리행동을 보일수록($\beta = -.117$) 차이가 컸다. 그리고 여가시간·여가비용·여가공간이 적을수록 차이가 나타남으로써($\beta = -.114$, $\beta = -.094$, $\beta = -.191$), 여가참여를 위한 자원으로서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이 요인들의 부족은 참여도를 낮춤으로써 선호와 참여의 차이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든 변수들은 자기개발적 여가활동 선호도와 참여도의 차이를 29.3% 설명해준다.

가정지향적 여가활동은 가족수가 많을수록($\beta = .147$), 용역형의 가정관리행동을 보일수록($\beta = -.142$) 선호도와 참여도에 차이가 있었다. 즉, 가족수가 많을수록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해야하기 때문에 여가활동에는 선호하는만큼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정관리행동유형도 가족수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시간소일적 여가활동은 가족수가 많을수록 선호도와 참여도에 차이가 있었다($\beta = .126$). 한편 여가시간이 적을수록 차이가 있어 목적지향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여가유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부족은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사교적 여가활동은 가정관리행동유형이 용역형일수록($\beta = -.129$), 여가공간이 적을수록($\beta = -.197$) 선호도와 참여도에 차이가 있었다.

자녀중심적 여가활동 선호도와 참여도의 차이에는 주부연령과 여가공간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

<표 6> 여가활동유형별 선호도와 참여도의 차이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여가활동 선호도와 참여도의 차이									
	자기 개발적		가정 지향적		시간 소일적		사 교 적		자녀 중심적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주부연령	-0.082	-0.081	-0.023	-0.079	-0.015	-0.049	-0.004	-0.013	0.078	0.323 ^{***}
교육수준	-0.353	-0.136 ^{**}	-0.083	-0.114	0.064	0.084	-0.039	-0.053	-0.033	-0.053
가족수	0.214	0.033	0.266	0.147 ^{**}	0.238	0.126 [*]	0.045	0.025	0.063	-0.041
소 득	-0.005	-0.052	0.001	0.034	-0.002	-0.075	-0.001	-0.039	-0.000	-0.009
가정자산	-0.000	-0.027	0.000	0.008	0.000	0.009	0.000	0.067	0.000	0.067
주택 유형	-0.741	-0.051	-0.124	-0.031	-0.074	-0.018	-0.382	-0.094	-0.100	-0.029
역할 지향성	0.125	0.115 ^{**}	0.009	0.029	0.015	0.047	0.008	0.028	0.021	0.082
가정관리 행동유형	-0.129	-0.177 ^{**}	-0.029	-0.142 [*]	-0.025	-0.119	-0.027	-0.129 [*]	-0.021	-0.122
여가시간	-0.008	-0.114 [*]	-0.000	-0.002	-0.003	-0.162 ^{**}	-0.001	-0.059	0.001	0.078
여가비용	-1.324	-0.094 [*]	0.013	0.003	0.113	0.028	-0.339	-0.086	-0.121	-0.036
여가공간	-0.702	-0.191 ^{***}	-0.094	-0.091	-0.047	-0.044	-0.203	-0.197 ^{**}	-0.131	-0.149 [*]
상 수	26.195		-4.148		-1.452		-4.962		1.447	
R ²	0.293		0.098		0.085		0.120		0.151	

*p<.05 **p<.01 ***p<.001

령이 많을수록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beta = .323$) 연령이 많은 주부들은 선호도에 비해 자녀의 성장으로 인해 참여도는 낮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각 유형별 여가활동 선호도와 참여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소득·자산 등 경제적 요인은 모든 유형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선호하는만큼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이나 자산보다는 실제로 여가활동에 할애될 수 있는 비용이 일부 유형의 선호도와 참여도의 차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가족수, 가정관리행동유형, 여가시간 등은 여가활동 선호도와 참여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수나 가정관리행동유형은 가사노동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여가보다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분배하는 상대적인 분배과정을 유도하며 여가시간의 부족 또한 참여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부담 및 이와 관련된 여가시간은 여가활동 참여를 제약하고 선호도와 참여도의 차이를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여가제약요인 만족도 유형에 따른 여가활동

앞에서 여가제약요인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도 및 선호도에 대해 검토한 바 있으나, 이때 여가제약요인은 객관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만족·불만족의 유형은 주관적 측면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여가제약요인 만족도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도의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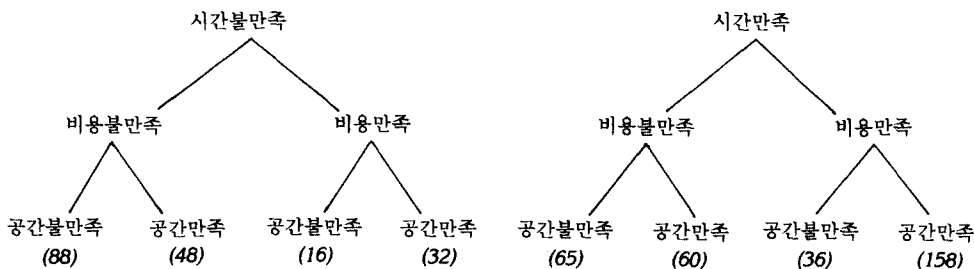
이를 검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여가제약요인에 대한 만족도를 유형화하였다. 여가제약요인은 여가시간·여가비용·여가공간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합할 경우 다음과 같은 8개 유형이 형성된다.

따라서 위의 모형에 근거하여 여가제약요인 만족도 유형을 설정하고 만족도 유형별 여가활동 참여도를 산출하였다(<표 7> 참조). 8개 유형에 따라 자기개발적·가정지향적·시간소요적·사교적 여가활동 참여도에 차이가 있었으나 유형이 세분화된 결과 차이가 일관성있게 나타나지 않는다. 개발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개발적 여가활동 참여도는 여가시간·비용·공간에 모두 불만족하는 유형 I의 경우 가장 낮게, 3가지 요인에 모두 만족하는 유형 VIII인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여가제약요인에 대한 만족 불만족 정도에 따라 참여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정지향적 여가활동은 시간과 비용에 만족하나 공간에는 불만족하는 유형 VII 집단의 참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시간소요적 여가활동은 시간에는 만족하나 비용과 공간 모두 또는 한가지에 불만족하는 집단(유형 V 및 유형 VI)에서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비용 또는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다른 유형의 여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반면 충분한 시간을 주로 정적인 활동에 소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교적 여가활동은 시간에는 불만족하나 비용과 공간에 만족하는 유형 IV와 세가지에 모두 만족하는 유형 VIII의 참여도가 현저히 높고, 3가지 모두에 불



*() 속의 수치는 사례수.

만족하는 유형 I의 참여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으로써 자기개발적 여가활동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한편, 자녀중심적 여가활동 참여도는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이 유형은 자녀와 관련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여가계약요인에 대한 만족·불만족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3. 생활만족도에 대한 변수들의 영향력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여가활동이 전반적인 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여가활동 참여도 및 선호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회귀분석에는 분산분석의 결과 생활만족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였다. 또한 변수들간의 상관계수를 검토하여 상관관계가 높은 자녀수와 가족수, 주부의 연령과 막내연령중 자녀수와 막내연령을 제외시켰다.

회귀분석 결과 생활만족도를 결정짓는 변수는 소득, 여가공간, 자기개발적 및 사교적 여가활동 참여도, 자기개발적 여가활동 선호도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즉, 소득이 많을수록($\beta=.174$), 여가공간이 많을수록($\beta=.094$)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자기개발적 여가활동 및 사교적 여가활동에 참여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beta=.423$)($\beta=.195$). 즉, 적극적으로 활동적인 여가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자기개발적 여가활동을 선호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beta=.098$). 그러므로 자기개발적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뿐 아니라 선호 또는 생활만족도에 기여한다. 모든 변수들은 생활만족도를 50.3% 설명해준다.

본 연구에서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자기개발적 여가활동 참여도로 확인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사교적 여가활동 참여도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주부의 생활만족도에는 여가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신을 발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여가활동의 참여 및 선호는 매우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가공간은 여가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표 7> 여가계약요인 만족도 유형별 여가활동 참여도

유형	여가활동 참여도														
	자기개발적			가정지향적			시간소일적			사교적			자녀중심적		
	평균	F값	DMR	평균	F값	DMR	평균	F값	DMR	평균	F값	DMR	평균	F값	DMR
유형 I	25.68		D	6.46		B	12.66		AB	11.13		C	6.04		A
유형 II	32.94		B	7.48		AB	12.56		AB	12.83		AB	6.41		A
유형 III	30.06		BC	6.69		AB	12.94		AB	12.13		B	5.44		A
유형 IV	36.72		A	6.59		B	12.19		B	13.63		A	6.10		A
유형 V	28.75		CD	6.55		B	13.75		A	12.17		B	5.81		A
유형 VI	32.82		B	7.35		AB	13.42		A	12.88		AB	5.53		A
유형 VII	33.11		B	7.67	**	A	13.11		AB	12.56		B	5.85		A
유형 VIII	37.01	25.32***	A	7.33	2.97**	AB	13.13	2.24*	AB	13.69	14.17***	A	5.70	1.02	A

* $p<.05$ ** $p<.01$ *** $p<.001$

유형 I: 시간 불만족인 동시에 비용 불만족이며 공간 불만족

유형 II: 시간 불만족인 동시에 비용 불만족이며 공간 만족

유형 III: 시간 불만족인 동시에 비용 만족이며 공간 불만족

유형 IV: 시간 불만족인 동시에 비용 만족이며 공간 만족

유형 V: 시간 만족인 동시에 비용 불만족이며 공간 불만족

유형 VI: 시간 만족인 동시에 비용 불만족이며 공간 만족

유형 VII: 시간 만족인 동시에 비용 만족이며 공간 불만족

유형 VIII: 시간 만족인 동시에 비용 만족이며 공간 만족

〈표 8〉 생활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생활 만족도	
		B	Beta
주 부 연 령		-0.098	-0.062
교 육 수 준		-0.288	-0.069
소 득		0.026	0.174**
가 정 자 산		0.001	0.083
역 할 지 향 성		-0.006	-0.004
가정관리 행동유형		-0.067	-0.056
여 가 시 간		0.006	0.049
여 가 비 용		1.661	-0.069
여 가 공 간		0.570	-0.094*
자기개발적 여가활동 참여도		0.622	0.423***
가정지향적 여가활동 참여도		-0.049	-0.009
사 교 적 여가활동 참여도		1.039	0.195***
자기개발적 여가활동 선호도		0.167	0.098
사 교 적 여가활동 선호도		0.278	0.049
상 수		46.067	
R ²		0.503	

*p<.05 **p<.01 ***p<.001

자원으로서 여가 참여를 유도할 뿐 아니라 생활만족도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극적인 여가활동과 이를 유도하는 여가공간의 확보를 통해 주부들의 생활만족도가 증진된다는 결과에서, 여가활동이 전반적인 생활에서 갖는 중요성이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산업의 발전에 따라 생활양식 및 가치관, 역할동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가 주부의 여가활동에 초래한 양상을 파악하는 연구는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부들의 여가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요인분석 결과 여가활동은 자기개발적, 가정지향적, 시간소일적, 사교적, 자녀중심적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여가활동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유형에 따라 특징을 나타내는데 자기개발적 및 사교적 여가활동과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은 교육수준·소득·남편직업 등 경제적 요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근대적인 역할을 지향하고 시장의존적인 가정관리행동을 보일수록 여기시간·비용·공간 등이 확보될수록 참여도가 높았다. 반면 자녀중심적 여가활동 참여도는 가족수·자녀수·주부 및 막내의 연령 등 주로 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세째, 여가활동 선호도의 차이를 탐색한 결과 자기개발적 및 사교적 유형은 교육수준·소득·남편의 직업, 가정관리행동유형, 여가시간·비용·공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가정지향적 여가활동은 교육수준·소득·남편 직업이 중간 계층이거나 가정관리행동유형이 용역형인 집단에서 선호하였다.

네째, 여가활동 선호도와 참여도는 차이가 있는데 자기개발적 여가활동의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용역형의 가정관리행동을 보일수록 근대적인 역할을 지향할수록 여기시간·비용 및 공간이 적을수록 차이가 있었다. 또한 시간소일적 여가활동은 가족수가 많을수록 여기시간 및 비용이 적을수록 차이가 나타났다.

다섯째, 여가제약요인에 대한 만족도를 조합한 유형화에 따라 여가활동 참여도를 검토한 결과, 자기개발적 및 사교적 여가활동은 여가시간·비용·공간에 모두 불만족할 때 가장 적게 참여하였으며, 모두 만족할 때 가장 많이 참여하여 만족 불만족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반면 시간소일적 여가활동에는 비용과 공간에 불만족함으로써 높은 참여도를 보인다.

여섯째, 생활만족도는 소득이 높을수록 자기개발적 및 사교적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자기개발적 여가활동 선호도가 높을수록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여가활동 참여도 및 선호도 그리고 선호도와 참여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유형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각 유형에서 나타나는 변수의 종류 및 영향력을 검토함으로써 주부 개개인의 특성, 가정환경, 또는 여가활동

에 할애할 수 있는 자원의 종류 및 양에 따라 적합한 여가활동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가활동 참여도 및 선호도가 중요한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경제적·인구학적 요인, 또는 사회문화적 요인보다는 여가활동 참여 및 선호가 생활만족도에 더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들을 검토해보면, 연령이 적고 자녀수가 적거나, 시장의존적인 가정관리행동을 보이는 주부들이 정적인 시간소일적 여가활동에도 많이 참여하였다. 즉 보다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주부들도 이를 창조적인 활동이나 교육적인 노력에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비조직적이며 긴장을 완화시키는 활동에 소비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주부 개인적으로 뚜렷한 여가 선호의식이나 계획적인 참여의식을 갖고있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여가시간을 소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여가계획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적인 여가프로그램이 사회적·공공적 수준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여가활동 참여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가제약요인중 여가공간은 많은 유형의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주부들은 가사노동의 책임으로 인해 공간적 제약을 많이 받으므로 가정의 활동은 주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한 근거리 내에서 결정된다. 또한 여가활동에는 공간과 동시에 시간이 소비되며, 이때 시간과 공간은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다. 즉 적절한 시간배분으로 공간의 부족을 보충할 수 있고, 적당한 공간을 선택함으로써 시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부의 여가시간은 단기적으로 분할된 경향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시간을 요구하는 여가활동에는 제약이 된다. 따라서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초월하는 다양한 여가참여를 위해서는 적절한 가정내 여가공간 및 가정의 여가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특히 가정의 여가시설이나 공간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바람직한 주거입지를 조성하는 일환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

시하면 첫째, 여가의 개념정의에 따라 여가의 범위에는 매우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연구에 따라 여가활동의 종류 및 이를 분류한 방법이 매우 상이하므로 연구결과를 비교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여가활동을 분류, 유형화시키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볼 때, 전업주부이외에 취업주부의 여가활동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취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족 및 친지 등 타인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적 여가활동을 포함시킴으로써 여가활동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사회봉사·단체활동 등 사회봉사적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강창수, "레저에 관한 소비자 행동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2) 김규호, "도시민의 여가의식 및 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3) 김외숙, "가족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조사 연구—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 4) 김철호, "소비자 레저활동 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5) 문숙재, 정은숙(1985), "도시 가정의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3권 3호, 1985, pp. 149~167.
- 6) 문숙재, 채옥희, 「가사노동」, 서울: 신광출판사, 1987.
- 7) 민경애, "주부의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의 실태와 지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8) 박현미, "가정관리 능력과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9) 백주현, "여가 선택 행동이 가정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10) 신문영, "레저 선택행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

- 증적 연구 — 싸이코 그래픽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 11) 안동선, “주부의 여가유형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서울시에 거주하는 비취업 주부를 중심으로 —”,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12) 이종각, 이병주, 「레크레이션학 입문」, 창학사, 1982.
 - 13) 이종숙, “확대기 가정의 가정생활 만족”,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14) 이창운, “도시 활동 유형에 관한 시·공간적 연구 — 주부의 家外 활동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장방신, “서울시 주부들의 여가생활 내용”, 건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 16) 지영숙, “한국 도시 주민의 여가생활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논문집」 21호, pp. 23~41.
 - 17) 홍성희, “여가활동 분석을 위한 방법론적 고찰”, 「과학논집」, 제16집, 계명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pp. 7~15.
 - 18) Becker, G. S.,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Vol. 75, No. 299, 1965, pp. 493~517.
 - 19) Bishop, D. W. & P. A. Witt., “Sources of Behavioral Variance during Leisure Time”,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Vol. 16, No. 2, pp. 352~360.
 - 20) Bortner, R. W. & D. F. Hultsch., “A Multivariate Analysis of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in Adulthood”, *Journal of Gerontology*, Vol. 25, No. 1, pp. 41~47.
 - 21) Burr, W. R., “Satisfaction with Various Aspect of Marriage over the Life cycle: A Random Middle Class Samp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2, No. 1, 1970, pp. 29~37.
 - 22) Carlstein, T., D. Parker and N. Thrift., 「Timing Spaces and Spacing Time」, Vol. 3, 「Time and Regional Dynamics」, Edward Arnold Ltd. 1978.
 - 23) ———, 「Timing Spaces and Spacing Time」, Vol. 2, 「Human Activity and Time Geography」, Edward Arnold Ltd. 1978.
 - 24) Chase, D. R. & N. H. Cheek., “Activity Preferences and Participation: Conclusions from a Factor Analytic Stud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11, No. 2, 1979, pp. 92~101.
 - 25) Chapin, F. S., “Human Time Allocation in the City”, 「Human Activity & Time Geography」, Edward Arnold. 1974.
 - 26) De Grazia, S., 「Of Time, Work and Leisure」, New York: The Twentieth Century Fund. 1964.
 - 27) Donald, M. N. & R. J. Havighurst., “The Meanings of Leisure”, *Social Forces*, Vol. 37, No. 4, 1959, pp. 355~360.
 - 28) Feldman, L. P. & J. Hornik., “The Use of Time: An Integrated Conceptual Model”,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7, March, 1981, pp. 407~419.
 - 29) Grnau, R., “Leisure, Home Production, and Work—the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Revisit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5, No. 6, pp. 1099~1123.
 - 30) Hawes, D. K., “Time Budget and Consumer Leisure—Time Behavior: An Eleven Year—Later Replication and Extension (Part I—Females), 1977.
 - 31) Hendrix, P. E., T. D. Kinnear & J. R. Taylor., “The Allocation of Time by Consumer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6, 1979, pp. 38~44.
 - 32) Holbrook, M. B. & D. . Lehmann., “Allocating Discretionary Time: Complementarity among Activiti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7, March, 1981, pp. 395~406.
 - 33) Iso-Ahola, S. E., “Basic Dimensions of Definitions of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11, No. 1, pp. 28~39.
 - 34) Jacoby, J., G. J. Szybillo & C. K. Berning., “Time and Consumer Behavior: An Interdisciplinary Overview”,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2, pp. 320~339.

- 35) Kaplan, 「Leisure: Theory and Polic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5.
- 36) Landon, E. L. & W. B. Locander., "Family Life Cycle & Leisure Behavior Research",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6, 1979.
- 37) Matsushima, C. 「Time-Input and Household Work-output Studies in Japan: Present State & Future Prospect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 Home Economics*, Vol. 5, 1981, pp. 199~217.
- 38) Murphy, J. F., 「Concept of Leisure Philosophical Implications」, Prentice-all, Inc., 1974.
- 39) Nickols, S. Y. & M. Abdel-Ghany, "Leisure Time of Husbands and Wiv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2 No. 2, pp. 189~198.
- 40) Parker, S., 「The Future of Work & Leisur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4.
- 41) ———, 「The Sociology of Leisure」, International Publications Service, 1976.
- 42) Parkes, D. & N. Thrift., 「Time, Spaces, and Places」, John Wiley Sons Ltd, 1980.
- 43) Ray, R. O., "Life Satisfaction and Activity involvement: Implications for Leisure Servi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11, No. 2, pp. 112~119.
- 44) Schram, R. W.,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A Critique and Proposa.",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1, No. 1, pp. 7~12.
- 45) Settle, R. B., P. L. Alreck & M. A. Belch., "Social Class Determinants of Leisure Activity",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6, 1979, pp. 139~145.
- 46) Szalai, A., 「The Use of Time」 *Daily Activities of Urban and Suburban Populations in Twelve Countries*, The Hague, The Netherlands: Mouton, 1972.
- 47) Unger, L. S. & J. B. Kernan., "Leisure and the QOL Construct: A Review & Some Modest Proposal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8, 1981, pp. 607~611.
- 48) ———, "On the Meaning of Leisure: An Investigation of some Determinants of the Subjective Experien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9, pp. 381~392.